부산은 지금 '지스타 열풍' 국내외 게임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형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2'가 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수 많은 게임유저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31개국 434개 게임업체가 참가해 신작게임과 대표게임을 소개하고 열띤 홍보전을 펼친다. <관련기사 8면> /뉴시스

박부장 자나깨나 '세컨드잡' 열공!

매년 45만명씩 직장서 아웃··· 월급쟁이들 "후반전엔 하고싶은 일 할거야" 올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5만명이 직장을 떠난다. 정년이 돼 떠나기도 하고 자기 사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또 회사의 재정문제나 구조조정으로 할 수 없이 조직을 떠나기도 한다. 분명한 사실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조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음이 남는다. "퇴직 이후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결국 두 번째 직업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두 번째 직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퇴나 퇴직 이후 남은 30~40년은 덤으로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기 때문이다. 인생 전반전을 내 집 마련과 가족 부양을 위해 힘겹게 보냈다면, 인생 후반전에서는 자신이 진정 해보고 싶었던 일을 찾아 행복하게 자아실현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2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 즉 은퇴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인생 2막을 준비했느냐에 달려있다.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올해 57세다. 중견기업에서 25년 가까이 근무하다 3년 전 퇴직하고 댄스스포츠 학원을 차렸다.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재미로 댄스스포츠를 배운 지 15년여 만에 자신의 '교습소'를 연 것이다. 김 씨는 "댄스가 너무 재미있었다. 퇴직하기 5년 전부터 (학원 개설을 위한) 투자비용을 틈틈이 모았고, 자리를 물색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 것 같다"고 했다.

#대기업인 D사의 시설관리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41)씨는 3개월 전부터 퇴근 후에 '제빵학원'으로 향한다. 어릴적 집 앞에 있는 동네 빵집의 새벽 불빛과 냄새를 좋아했던 그는 10년 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빵집을 차릴 계획이다. "프랜차이즈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곳(현 직장)에서 제 업무 분야의 경우 정년을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60대 이후에도 일을 하려면 늦어도 50대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인사조직컨설팅 업체 인재이매니지먼트 이대형 대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퇴 예정자들이 전직 지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컨설팅 도움도 큰 효과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은퇴·퇴직 준비도와 직업선호도 등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물론 컨설팅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미 은퇴를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개인이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손쉬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와 증권사 등 각종 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의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제2의 인생 준비 체크 포인트'도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실례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도 은퇴 준비의 체크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해도 곧바로 재취업할 수 있는 주특기의 유무 ▲정년 후 취업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지의 유무 ▲회사에서 벗어나 별도의 동호회 또는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유무 등을 따져보라고 했다.

/임지형기자 izzyhand@metroseoul.co.kr

덤프트럭 농성 충북 진천군 건설장비업계가 8일 지역 건설공사 현장에 외지 대형 건설장비가 투입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진천군청 광장에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장비 20여대를 동원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주민반대' 서울 재건축·재개발 8곳 해제

주민반대에 부딪친 서울 재개발·재건축구역 8곳이 결국 해제된다.

8일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정비·정비예정구역 3곳과 주택재건축 정비·정비예정구역 5곳 등 4개구 8곳 17.6ha를 해제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심의 통과에 따라 이번달 중 정비·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구역지정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안암동2가 59번지 ▲관악구 봉천동 14번지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정비예정구역 3곳과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중랑구 중화동 134번지 ▲면목동 393번지 ▲금천구 시흥동 905-6번지 등 주택재건축 정비·정비예정구역 5곳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자격기준 연내 개편

상여금 합산 실질소득 반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자격기준이 실질소득을 반영하는 등 연내 개편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자금대출의 소득 등 자격기준을 올해 말까지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생애최초 대출을 재개하는 등 총 10조1500억원에 달하는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앞두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애최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에 상여금 등을 합산해 실질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생애최초 대출과 근로자서민 대출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까지다.

또 국토부는 상여금 포함으로 지원대상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현행 소득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고 대출 종류별로 다른 자격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연내에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원기자 lazyhand@

알림

예술과 기업의 아름다운 소통

메세나 지원사업 첫걸음
11일 서울역사박물관서

Seoul Mecenat Initiative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 '서울메세나와 아츠워크(Arts Walk)'가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와 앞마당에서 개최됩니다.

메세나는 기업이 문화예술에 자금과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창작활동을 후원하고 보다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이 매개가 되어 기업의 예술지원인 '메세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이 행사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메트로신문사가 후원합니다.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MC 진양혜의 사회로 조재혁, 강은일, 조이오브스트링스의 공연이 펼쳐지고 어시어나항공 등 기업과 안은미컴퍼니 등 예술단체의 전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서울모테트합창단의 결연식, 키해브터와 서울문화재단의 약정 체결식 등이 진행됩니다. 이밖에 메이킹메세나, 힐링메세디 전시 프로그램 등이 펼쳐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칠곡 찌글이된장·백양산 녹차굴비백반

고속도 휴게소 최고의 맛

고속도로 휴게소 돈가스는 양산, 국밥은 이천 휴게소가 제일 맛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의 음식을 가리는 제9회 맛자랑 경연대회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휴게소 음식의 맛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전국 172곳 휴게소 중 지역예선을 통과한 42곳의 대표 음식들은 7일 충북 음성의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에서 경연을 벌였다.

심사는 고객과 외부 전문가의 선호도 평가를 합산해 찌개·덮밥, 비빔밥, 돈가스, 국밥, 특화메뉴 등 6개 부문별 최고 음식에 투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의 음식으로는 ▲찌개 칠곡휴게소(부산)의 찌글이된장 ▲덮밥 임성휴게소(인천)의 찹스테이크 ▲비빔밥 섬진강휴게소(순천)의 청아산채정 ▲돈가스 양산휴게소(서울)의 정도수제돈가스 ▲국밥 이천휴게소(하남)의 곤지암소머리 ▲특화 메뉴 백양산휴게소(논산)의 녹차굴비백반이 선정됐다.

/장윤희기자 unique@

허수아비 친구와 찰칵 8일 서울 강서구 롯데몰 김포공항점을 방문한 한 가족이 옥상정원에 설치된 다양한 모양의 이색 허수아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제공

<2050년>

591만명 당뇨대란 온다

30~40세 환자 절반 정작 본인이 당뇨병인지도 몰라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은 당뇨병을 앓거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당뇨병학회가 내놓은 2012 한국인 당뇨병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만 30세 이상 성인의 10.1%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또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은 19.9%에 달했다. 성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 상태고, 10명 중 2명은 잠재적 당뇨병 단계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30~44세의 젊은층이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를 앓고 있는 비율이 18.4%였으며 45~64세는 34.7%, 65세 이상은 47.4%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았다.

그러나 문제는 30~44세 젊은 당뇨병 환자의 46%가 본인이 환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한당뇨병학회 수석부총무(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젊은 성인은 설마 자기가 당뇨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혹 진단 당시 이미 당뇨병성 합병증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971년 당뇨병 환자는 1.5%에 불과했지만 2001년 8.6%, 2010년 10.1%로 약 40년 사이에 7배가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50년 당뇨병 환자는 현재의 약 2배인 59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말 그대로 당뇨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당뇨병 환자의 75%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는 분석 결과도 담겼다.

/김민지기자 min@metroseoul.co.kr

부자 아빠·가난한 아빠 사교육비 6배 차

경기 불황 탓에 사교육 시장 성장이 정체 국면을 맞았지만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 규모 격차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5.9배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간 가구당 교육비를 소득 계층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지난 2분기에 교육비로 매달 38만4175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은 6만5529원을 교육비로 썼다. 지난해 2분기에는 5분위와 1분위가 매월 각각 38만6973원과 6만5743원을 교육비로 지출했다. 당시 격차 역시 5.9배를 기록했다.

사교육비의 경우, 올해 2분기 상위 20% 소득층의 지출은 가구당 28만2425원, 하위 20% 계층은 4만4436원으로 6.4배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2분기에는 각각 28만6832원과 4만114원으로 7.1배 차이였다.

사교육비 지출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수지의 교육 지출 중 학생학원교육 부문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김유리기자 grass100@

살갗까지 떨어지는 사람잡은 강력파스

접착력 16배 초과 '부작용'

붙이는 진통소염제인 이른바 '파스'의 접착력이 너무 강해 피부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위해 사례 중 특히 파스를 장시간 사용한 후 떼어낼 때 살점이 떨어나는 피부 표피 박탈 사례가 57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40건(23.8%), 발진 22건(13.1%), 물집 19건(11.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20개 파스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접착력이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5.8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 주의사항 개선 등을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도한 접착력이 표피박탈·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이라며 "현행 규정에는 접착력의 최저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용호기자

메트로 수능 특별판 인기 수능이 끝난 8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앞에서 수험생이 메트로신문 수능특별판을 보고 있다. 이날 고사장 근처와 지하철역 등에서 배포한 특별판에는 수능답안지와 정답표, 수능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영화소개, 수험표로 즐기는 공짜 외식메뉴 등 다양한 정보를 실어 큰 인기를 끌었다.

수리·외국어 어려웠고 언어는 쉬웠다

원점수 2~5점 하락 예상

학원들 "정확한 예측 어려워"

원서 접수 기준으로 66만8522명이 응시한 201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8일 일제히 치러졌다.

출제 당국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으나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쉽지만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3개 영역의 원점수 합계가 지난해보다 인문계 평균 4~5점, 자연계 2~3점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언어 영역은 쉽게, 수리와 외국어 영역은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영역별 1등급컷이 언어 94~96점, 수리 가 86~89점, 수리 나 89~90점, 외국어 92~95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등급컷은 원점수 기준 언어 94점, 수리 가 89점, 수리 나 96점, 외국어 97점이었다.

만점자 비율은 언어는 애초 수능 출제본부가 예상했던 1% 정도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지만, 수리와 외국어는 각각 0.4~0.5%, 0.7~0.8%로 추정된다. 지난해 만점자 비율은 언어 0.28%, 수리 가 0.31%, 수리 나 0.97%, 외국어 2.67%였다.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의 EBS 교재 및 강의 연계율은 각각 72%와 70%였다.

용인외고 박숙녀 교사는 "수리 가형은 원리를 이해해서 구해야 하는 문제와 신유형 문항 등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시 모집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구조조정 등으로 모집 인원이 줄어든 데다가 내년부터 수능이 A, B형 체제로 이원화되면서 입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재수를 피하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수능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해 19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28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채동호기자

동구 CCTV 관제센터 내년 1월부터 본격운영

부산 동구는 주민 안전을 감시할 CCTV통합관제센터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동부경찰서, 남부교육지원청 등과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는 물론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리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동부경찰서는 24시간 효율적 관제를 위해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고 방범과 학교 어린이보호 CCTV 책임관제를 맡는다.

또 남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보호 CCTV 관제인력을 지원하고 학교 내 카메라와 영상전송장비의 유지와 관리를 맡는다.

특히 구는 효율적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CCTV 설치현장 3D지도를 부산시 최초로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시설에 1억8000만원 부산경남경마공원 쾌척

KRA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과 불우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8일 부경경마공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지역 내 어린이재단과 교육청을 통한 장학금 1억6000만원 지원에 이어 두 번째 사회복지 지원 프로젝트로 경마공원은 지난 2일 부산과 경남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룸성원 등 24개 복지시설을 선정, 각 시설당 400만~100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원한 복지시설에는 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10곳으로 줄이는 대신 다문화가정 정착 등 프로그램 사업을 10개로 늘리고 시설 4곳에 경차 1대씩을 추가 지원했다.

또 앞서 지난 9월 부산과 경남지역의 어린이재단에서 추천한 불우아동 및 청소년 16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6개월간 생활비를 지원, 1억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부산과 경남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을 위해 각 관할 교육청을 통해 26개교에 6000만원을 지원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용산구 신문로 2가 1-141 ???
TEL (02)721-9800 FAX (02)730-1551
총괄인쇄인 남규호
사측총장인 김충직
부산지사장 겸대 김종춘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자센터 (02)721-9892
2007년 5월 3일 창간 2007.5.28 등록번호 경북가 00017

낙동강 겨울철새 보러가자

17일부터 탐조·생태체험 등 행사 열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제3회 겨울철새 맞이 행사 '낙동강하구 겨울철새와 만나다'를 개최한다.

8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낙동강 하구 일원(을숙도, 명지갯벌, 아미산 전망대 등)에서 실시되며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8일간(19일 제외) 일정으로 진행된다.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탐조프로그램, 생태체험여행, 체험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탐조프로그램은 월동하는 조류 관찰을 위해 남단탐조, 버스 및 선박투어가 실시될 예정이다.

을숙도 남단 탐조대에서 조류 할 관찰해 볼 수 있는 남단탐조는 18, 24, 25일 3일간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하루 세 차례 진행된다.

버스투어는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24일 오후 2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을숙도 남단 해상을 둘러보는 선박탐사는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17, 18, 24, 25일 4일간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또 생태체험여행은 ▲습지탐방(17, 18일) ▲갈대길 걷기(24, 25일) ▲야간습지답사(24일) ▲철새먹이주기(17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솟대 만들기(17일) ▲전통연 만들기(25일) ▲갈대공예(18일) 등이 마련되어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무료(선박탐방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일부 유료)로 운영되며 19일 일요일은 휴관일로 행사가 없다.

일부 행사는 버스나 선박으로 이동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9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홈페이지(wetland.busan.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51)209-2051~6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보육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역사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과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석봉사상 후보자 공모

(사)부산사랑이태석기념사업회는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다 숨진 고(故)이태석 신부를 기리기 위해 '제2회 이태석봉사상' 수상후보자를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공모한다.

이태석봉사상은 해외 오지에서 3년이상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봉사활동에 공헌한 부산·경남 출신의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후보 추천은 (사)부산사랑이태석기념사업회 다음 카페(http://cafe.daum.net/johnlee1004)에서 이태석봉사상 후보 추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우편 접수할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접수된다.

이 사업회는 이달 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하고 내년 1월 10일 오후 6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51)637-0125

원도심 '빛의 물결'

부산항 빛 축제 오늘 개최

부산 원도심을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들일 '2012년 제3회 부산항 빛 축제'가 9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부산항 빛 축제는 (사)부산항빛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와 영도구·중구·서구가 마련하는 원도심 통합 문화축제다.

특히 올해는 새로 조성된 혁신지구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비상(飛上)'을 주제로 오는 18일까지 열흘간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또 주제에 맞춰 축제 기간 중 열기구 3대가 행사장 상공을 장식한다.

대형 열기구 1대는 LED 조명을 이용해 영도 밤바다를 비추는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나머지 2대의 열기구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탑승해 밤하늘로 비상하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 ▲빛 조형전, 빛 주제관, 빛 광장, 수미니리에 등 '전시 프로그램' ▲소망 빛 길, 빛 체험관, 염원의 나무 등 '체험 프로그램' ▲청춘콘서트, 재즈의 밤 등 '공연 프로그램'이 국립해양박물관을 비롯해 중구 중앙로 일대, 광복로 일원, 송도해수욕장 등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문예 공모지원사업 설명회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12일과 19일 양일간 오후 3시부터 부산디자인센터 6층 이벤트홀에서 '2013년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변화하는 예술지원 정책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모사업의 변경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설명회는 ▲2013년 부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에 대한 1차 설명회(12일) ▲2013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에 대한 2차 설명회(19일)로 나눠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포늪 생명길 걸어볼까 경남 창녕군은 오는 17일 오전 우포늪 생태관 대외무대에서 우포늪을 사랑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포늪 생명길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걷기대회 모습. /창녕군 제공

터키문화 한번 배워볼까

'…이스탄불의 황제들' 기획전 연계 다양한 시민강좌 잇따라

(사)부산박물관회는 부산박물관과 공동 주관하는 2012 부산박물관 특별기획전 '터키문명전-이스탄불의 황제들'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문화강좌를 잇따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1시~4시30분 부산박물관 소강당에서 이난아 한국외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과 세밀화'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교수는 강연을 통해 파묵이 소설 '내 이름은 빨강'에서 이슬람 회화의 개화기를 대표하는 터키의 전통화법인 세밀화와 소설을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고은영 씨가 '비잔티움의 예술-현상의 미, 아콘'을 주제로 현재 이스탄불에 흔적만 남아 있는 초월적인 정신세계의 의미를 짚어볼 예정이다.

터키 카파도키아 전경.

이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를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 28일에는 후세인 이지트 이슬람문화원장이 나서 '문명의 교차로-터키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고대 아나톨리아 인류의 1만 년 유적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트로이, 에페의 동산, 성모 마리아 하우스 등을 비롯한 이스탄불의 고대문화에서부터 터키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와 민족사 등을 슬라이드로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6일부터 12월 말까지 '응답하라 터키문명전'을, 오는 11월에는 '빼빼로데이 이벤트'를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터키문명전은 한국과 터키 수교 55주년을 맞아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1월 27일까지 열리고 있는 특별기획전으로, 터키의 국립박물관 4곳이 소장 중인 문화재 167점을 전시 중이다.

/김수미기자 kam@metrobusan.co.kr

고성들판 '곤포' 장관 추수가 끝난 경남 고성군 들판을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로 가득 채워 눈길을 끌고 있다. 곤포는 볏짚에 3~4일 말려 발효액을 뿌린 볏짚을 지름 1.2m, 무게 350kg 정도로 단단히 흰 비닐로 둘러싼 덩어리다. /고성군청 제공

성철스님 발자취를 찾아서

탄신 100주년 특별순회전

이 시대의 부처로 불렸던 퇴옹당 성철스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 일대기 특별순회전이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민회관은 현재 경남 합천 해인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특별전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성철스님 탄신 마지막 순회전으로 100주년 기념 특별순회전을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민회관 전시갤러리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순회전은 청빈한 삶과 서릿발 같은 수행으로 '자기를 바로 보는 법'을 일깨워주신 성철스님의 출가시를 비롯해 수행과 장시, 심이명 등 삶과 열반에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유품과 사진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장은 '탄신과 출가', '수행과 정진', '동구불출과 사자후', '백련총림과 백일법문', '종정과 한글 법어', '열반과 다비식' 등 6편과 '종단의 큰스님과 성철스님' 편이 별도 편성된다.

한편 부산시설공단 시민회관 강진형 관장과 백련불교문화재단 원택 스님, 부산불교방송 권병훈 총괄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후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순회전'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개편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이 2013학년도부터 FTA 국제통상과 다문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한국학 등 4개 전공의 국제전문대학원으로 개편, 9일 출범식을 가진다.

동아대는 FTA 국제통상 연구의 강화, 다문화 교육 및 연구의 강화, 전 세계 한국학 개설 대학과의 협력 및 협력교육체제의 구축,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의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커리큘럼의 전면 개편 및 해외 대학과의 1+1 복수학위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해외취업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과기대, 북경현대차 등과 취업연계 협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김광태 총장직무대리 일행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3일까지 중국 북경현대자동차를 비롯한 3곳의 자동차관련 업계를 방문해 학생 취업연계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유학한 중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와 전공기술 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중국 현지 한국기업체로 취업을 연계하고자 추진된 것.

이 사업을 위해 대학은 현재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북경현대자동차는 지난해 2월 이와 관련한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광주 간 '내조의 여왕들'

단일화 앞둔 文·安 부인 같은 날 방문 호남민심 잡기 경쟁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8일 광주 효령노인복지관을 찾아 한 복지관 생활자와 포옹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양 후보 측 부인의 내조 경쟁이 치열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부인 김정숙씨와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8일 각각 광주를 찾았다.

김정숙씨는 문 후보와 함께 광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앞서 송정리 제래시장과 효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했다. 김씨는 복지관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사람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마중 나온 노인의 손을 잡았다.

김씨는 또 광주 북구갑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예비분의 힘이 한데지면 12월 19일 문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숙제를 반드시 해내리라 확신한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공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한 김 교수도 이날 양동시장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오월어머니집,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등을 찾아 안 후보 알리기에 나섰다.

"남편 이름이 철수라 사람들은 나를 영희로 생각하는데 전 영희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이라고 소개한 김 교수는 "광주 살레시오초등학교를 3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광주는 미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친근감을 보였다.

이어 "안 후보가 지금까지 보통 사람과 똑같은 행보를 보인 적은 없지만 어떤 결정을 해도 믿음이 가는 것이 매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찾아 노래를 부르며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8일 광주 송동시장을 찾아 한 상인의 손을 받아들고 있다 /뉴시스

朴을 신격화… 입만 살아서…

황상민 교수 vs 김성주 위원장 '생식기 언쟁' 2라운드

황상민 연세대 교수와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차례로 출연해 생식기 발언에 대한 말싸움을 벌였다.

8일 황 교수는 방송에서 "박 후보를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기보다 미치 신적인 존재로 우상하는 미울일 경우 마치 '생식기'라는 단어는 신성모독이다. 불경스럽다는 심리상태를 그대로 니타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이 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출연한 김 위원장은 황 교수에 대해 "입만 살아서 교수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고 한심하다"며 "방송에 나와서 교수가 인기를 걷고 돈을 번다면 제 모교(연세대)가 수치스럽다"고 맞섰다.

또 "왜 잘 나가는 여성이 대해 못 참는지 심리학 교수연대 자기 심리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황 교수가 맞붙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신이상 같다. 시간이 아깝다"고 응수했다.

/배동호기자 eleven@

文·安 단일화 실무팀 첫 회동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앞두고 발표하기로 한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팀이 8일 첫 회동에서 정치권의 기득권을 줄이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지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확정한 정치혁신 4대 의제에 대해 향후 구체화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양측 실무단이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김현미 의원, 정해구 담쟁이상 문 후보 측, 김성식 팀장과 김민전(경희대), 심지연(경남대) 교수 /뉴시스

"김재철 해임 부결 朴측 외압 있었다"

민주 "언론장악 바통터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데 대해 야권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청와대와 여권 개입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방송문화진흥회의 정부·여당 추천 이사 6명 중 5명이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에 부결표를 던짐으로써 또다시 국민 여망이 무너지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하금렬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사장 유임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정권과 박 후보가 공영방송 MBC 장악의 완벽한 동반자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박 후보는 김 본부장의 개입 의혹 실체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강형구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박 후보가 그대로 바통 터치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어리석게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믿었다가 철저하게 속은 책임을 지려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하 실장의 외압설에 대해 "그런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유리기자

자연과 하나된 친환경 명품단지

풍요로운 원스톱 생활 대단지
부산정관5단지 국민임대아파트
추 가 모 집

부산정관5단지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 | 전용 51㎡ |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형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최대임대보증금	최저임대료
51	20,700,000	249,000	38,700,000	129,000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신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3인이하가구	2,974,030원 이하
	4인가구	3,303,550원 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 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교통, 생활, 교육의 모든 것이 갖춰진 정관신도시 중심

웰빙 좌광천과 편리한 상권까지!
꿈꾸던 내집마련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건설위치 :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02

▶공급일정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소	입주예정월
11.12(월) ~ 11.13(화)	11.22(목)	12.27(목)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	'13.10월

LH콜센터 **1600 - 1004**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택지개발지구내 A-19BL

LH 부산울산지역본부

KOSPI	11/2	11/5	11/6	11/7	11/8
	1916.72	1909.22	1928.17	1937.55	1914.41 (-23.14)

KOSDAQ	11/2	11/5	11/6	11/7	11/8
	513.37	515.14	517.53	518.45	519.04 (+0.59)

해외 지수	
Nikkei (일본)	8637.15 (-135.74)
Hang Seng (홍콩)	21566.91 (-532.94)
Shanghai (중국)	2071.51 (-34.22)
Dow Jones (미국)	12932.73 (-2.36)

EXCHANGE RATE	
달러	1089.30
엔 (100)	1364.21
유로	1391.93
위안	174.58

러·中도 게임하러 부산에!

글로벌 전시회 도약한 '지스타 2012' 어제 개막… 모바일이 주류 '실감'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12가 8일 부산 벡스코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1개국 434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 개막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차관,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회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태건 원장,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남궁훈 대표, 넥슨 서민 대표, NHN 한게임 이은상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첫 민간 주도로 열리는 지스타 2012에는 차세대 온라인게임 신작을 비롯해 세계 게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의 신작 등이 대거 출품됐다.

특히 게임 비즈니스를 위해 지스타를 찾는 해외 게임기업이 처음으로 절반(50%)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시회로 도약했다.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과 러시아 게임 기업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 지스타의 위상을 가늠하게 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서 손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이 주류로 떠오르면서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빌, SK플래닛 등 이 분야 전문 업체들이 지스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네오위즈게임즈의 '블레스', 위메이드의 '이카루스' 정도가 온라인 대작 게임의 체면을 지켰다.

다만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등 간판 온라인게임사가 이번 행사에 불참했고 매년 지스타 무대에 등장했던 블록버스터 게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옥에 티라는 평가다.

첫날 5만 명(추정치)의 관람객을 맞은 지스타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www.gstar.or.kr)등에서 예매하거나 현장 구매도 할 수 있다.

/부산=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8일 오전 '지스타 2012' 관람객들이 블리자드 부스에 몰려 있다. /뉴시스

K5 하이브리드와 '사랑의 배추' 기아자동차는 11월 한 달간 'K5 하이브리드' 한 대가 판매될 때마다 김장배추 한 포기가 적립되는 이웃사랑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아차 제공

은행 가계대출 2조 급증

10월 취득세 감면 영향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폭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9월 말 주택 거래 관련 세금 감면조치가 시행되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이다. 반면 기업대출 증가폭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2조원 증가한 46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거래 부진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환 등으로 지난 9월 8000억원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9월 말부터 취득세 감면 및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주택 거래가 늘고, 주택 관련 대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2200호에서 9월 2100호, 10월 3900호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모기지론 양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도 추석 연휴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으로 7000억원 감소에서 1조5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대출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달 기업대출 2조7000억원 늘어난 5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5조4000억원의 절반 규모로 결제성자금 대출의 만기 상환이 전월말 휴일로 인해 10월 초로 이연되면서 중소기업대출 증가폭이 5조1000억원으로 6000억원으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김재홍기자

바닥쳤나… 9월 광공업 생산 큰폭 증가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 수출이 모두 개선되면서 바닥을 찬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광공업 생산은 9월 자동차 생산 증가로 인해 전월 대비 0.8% 증가하는 등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 생산 역시 금융·보험·운수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 부문이 모두 증가, 비교적 높은 전월 대비 0.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월(73.7%)보다 상승한 75.2%를 기록했다.

9월 중 민간 소비도 자동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8월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아울러 10월 중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로 전환됐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 역시 38억 달러로 확대됐다. 수출은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며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김재홍기자

저금리인데… 한은 창고에 쌓여가는 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시중 통화량 증가율이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의통화(M2) 평균 잔액(계절조정계열 기준)은 1년 전보다 5.2% 증가한 182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5.7%)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올해 1월(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1%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3월(0%) 이후 가장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예금 유치 노력이 약화되면서 광의통화 증가율도 둔화됐다"고 밝혔다.

/김재홍기자

8500만원 부담줄인 한강 옆 내집

'미래도&엘가' 1060가구 임대분양 … 입주 5년뒤 주택기금 납부

모아건설과 모아주택산업은 김포 한강신도시 Ab-10블록에 들어서는 모아 미래도&엘가 1060가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전용면적 84㎡(구 33평형)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수요자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4가지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통상 일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금액 전부를 계약 때부터 입주 시까지 나누어 내는 반면 모아 미래도&엘가는 계약 때부터 입주 시까지 3.3㎡당 610만~620만 원 확정 임대가만 나눠서 납부하고 나머지 국민주택기금 8500만원은 입주 5년 뒤(2019년)에 납부한다.

확정 임대가로 계약을 했을 경우 별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고, 입주 5년 후 국민주택기금 8500만원은 별도로 이자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 발코니 확장비용도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착한금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중도금 대출시 코픽스 금리(2012년 10월 14일 기준 3.72% 변동) 외에 1~2%의 가산금리를 전액 회사가 부담해 계약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 중도금 발생일이 2013년 상반기에서 약 1년간 이자비용만 발생된다.

단지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신도시 내 운유산과 조류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김포대수로와 연결되는 보행자 통로가 설치된다. 단지 내 생태 면적률도 50%로 1km의 산책로, 잔디공원 등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한 대신 지상 공간에는 녹지와 조경시설들로 가득하다.

교통도 편리해졌다. 기존 서울~김포 간 48번국도(확장)와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IC를 통한 수도권 접근이 쉬운 데다 지난해 7월 한강신도시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가 개통돼 여의도까지 20분대, 강남까지 40분대면 도달할 수 있다.

현재 김포 고촌읍에 모델하우스가 개관 중이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받고 있다.

문의(031)982-8787

/김지성기자

사고치는 보험사 뒷처리 고객 몫?

저금리 아랑곳 고배당 최근 역마진 우려일자 표준이율 인하 움직임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표준이율 개편으로 보험사들의 수익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의 보험사 역마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고배당을 남발하며 자체 대비를 하지 않은 보험사들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들의 역마진을 우려해 8년 만에 표준이율 계산식을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둔 책임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표준이율이 하락한다는 건 수익률이 낮아져 고객한테 돌아가는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고객이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다.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표준이율 1%포인트 하락하면 보험료는 10~15%가량 오른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고배당을 하며 저금리 기조에 대비하지 않았던 보험사의 허물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맏형 삼성생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9483억원의 41.5%인 3940억원을 배당했고, 그 뒤를 잇는 한화생명(구 대한생명)도 37.1%라는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며 1937억원을 배당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수출을 비롯해 소비·생산·투자 모든 부문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배당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표준이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면서도 "그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일부 감내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손쉽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성기자 kimjisung@metroseoul.co.kr

日에 팬택 'LTE폰 카페' 오픈 팬택은 일본에서 최초로 출시한 LTE폰 '베가 VEGA) PTL21'의 출시를 기념해 일본 시부야에 '베가 PTL21'을 체험할 수 있는 터치리스 폰 카페'를 8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터치리스 폰 카페'는 베가 PTL21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다. 터치&트라이 존을 마련해 누구나 '베가 PTL21'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다. /김지성기자·팬택 제공

서점가 여전한 '힐링' 바람

혜민스님의 인생 잠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11주 연속 1위를 유지했다.

8일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김난도 교수의 인생 멘토링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10주 연속 2위를 지켰고, 정목스님의 치유 에세이 '달팽이가 느리다고 늦지 않다'는 3주 연속 3위 자리를 유지하는 등 서점가의 에세이 힐링 바람이 계속됐다.

최세라 예스24 도서팀장은 "2012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힐링'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로를 넘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며 "위로와 격려에서 더 나아가 자기성찰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고 자기 발전의 계기를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성기자

metro Colombia

metro Russia

유럽 최고 높이 빌딩 러시아에 '우뚝'

러시아 모스크바에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들어섰다. 메트로 모스크바는 모스크바시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총금액 탑 '메르쿠리 시티'의 높이가 338.83m(지상 75층, 지하 5층)로 유럽 대륙에서 가장 높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기존 유럽 최고 빌딩이었던 영국 런던의 'The Shard'보다 29m 높은 수치다. 2006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메르쿠리 시티' 빌 건설하는 데 들어간 돈은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로 추산된다. 한편 현재 전 세계 최고를 밟은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160층·828m)다.

metro China

조오화 피아노 놓인 '5성급 병원'

현대적인 외관에 탁 트인 실내 공간, 고급스러운 피아노…. 지난 5월 문을 연 중국 난징 구러우(鼓樓)병원 신축 건물은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한다. 정부보조금 등 11억 위안(약 1913억원)을 들여 건설한 신축 병원의 내부 면적은 200만㎡로 중국 내 의료시설 중 최대 규모다. 옥상에는 물기 헬리패드가 있으며 스타벅스도 조만간 병원에 들어선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700만 위안에 달하는 고급 피아노. 병원 관계자는 "피아노는 한 달 동안 임대한 것으로 피아노를 통해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etro Mexico

'멕시코는 기네스 천국'

정치인에 욕하기 온몸에 문신하기

지난 10년간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멕시코의 기네스북 등재 기록이 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네스북 관계자인 스튜어트 클랙스톤은 "멕시코는 기네스북 기록에 가장 열을 올리는 국가"라며 "지난해에는 기네스북 팀이 기록 확인을 위해 12차례나 멕시코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기네스북은 매년 5만 건의 기록 등재 신청을 받으며, 그중 20% 정도를 최종 등재한다.

멕시코의 이색 기네스북 기록으로는 지난 7월 3일 할리스코에서 있었던 '정치인에게 욕하기'가 대표적이다. 이 도전은 2006년 에밀리오 곤살레스 주지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했던 욕설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역 주민 500명은 122데시벨(dB)로 주지사에게 똑같은 욕설을 퍼부었다.

몸의 96%를 문신으로 덮는 등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체 변형이 가장 많은 여성으로 등재된 '흡혈귀녀'의 기록도 눈길을 끈다.

자녀 넷을 둔 변호사 마리아 호세 크리스테르나는 가정폭력 때문에 몸을 극단적으로 변형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열네 살 때 처음 문신을 했다"며 "결혼 후 남편의 폭행 때문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신체 곳곳을 변형시켰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면을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곳니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수술을 받아 '흡혈귀녀'라는 별명도 얻었다.

/정리=조선미 기자

남미 강도는 생쥐·계란이 무기

대리주차해 준 뒤 열쇠 복사→집 찾아가 자동차 도둑질해 가기도

살아있는 쥐나 날계란을 이용해 도둑질을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6일(현지시간) 메트로 콜롬비아는 이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남미의 도둑들을 특집기사로 다뤘다.

◆콜롬비아

자루에서 튀쳐나온 것은-가루를 들고 버스에 타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갑자기 승객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안 그럼 쥐를 던지겠다"며 위협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쥐가 강도 무기로 돌변한 셈이다.

황산이 들어있는 컵-여성들을 겨냥한 황산테러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이 들고 있는 컵에 황산이 들어있다고 협박한다. 만약 피해자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 그 컵을 얼굴에 부어버린다.

◆페루

갑자기 날아든 날계란-운전 중 유리창에 갑자기 날계란 하나가 날아온다. 날계란을 닦기 위해 워셔액을 뿌려보지만 깨진 날계란에 의해 유리는 점점 더 뿌옇게 변한다. 유리를 닦기 위해 피해자가 내리면 강도들이 나타나 모든 것을 훔쳐간다.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길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또 집이 어디인지를 묻는다. 아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데려다 주던 피해자는 갑자기 나타난 강도에게 봉변당한다.

◆멕시코

커피 든 사람 조심해야-커피를 든 사람이 다가와 갑자기 부딪친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커피를 닦아준다. 괜찮다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주머니를 살펴보니 이미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 값비싼 물건이 사라진 상태다.

대리주차도 위험-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대리 주차하는 경우도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차 안에 집 주소가 있는 서류가 있다면 도둑들은 대리주차로 맡긴 차 키를 복사한 후 나중에 집으로 방문해 차를 도둑질해 간다.

◆과테말라

신호대기도 위험-운전 중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빨간불에 걸려 차가 멈춘 순간을 노려 총기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강도들은 항상 둘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특징이 있다.

/정리=이국명 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평생 여성인줄 알고 살았는데…
- 남성의원 "여자는 땅" 발언 논란
- 러시아인 게임머니 연 1조 쓴다

What's Hot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겨울 한정메뉴의 새로운 TV광고 '치즈 랍스터 & 석류 스테이크' 편을 론칭했다. 이번 광고는 조인성과 이광수가 등장해 로맨틱하고 코믹하게 예상을 뒤집는 즐거운 상상이 펼쳐진다. 누구나 꿈꾼 법한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를 고객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아웃백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다.

제옥스가 11일까지 전국 백화점 매장에서 보상판매를 실시한다. 헌 제옥스 구두를 반납하는 고객에게 제옥스 신상품 전 품목을 20% 할인해 준다. 문의 1588-7667

디에스글로벌은 일산현대백화점 킨텍스점 9층 토파즈홀에서 28일 강력홍밴드의 블루스&락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니아를만 즐기는 음악에서 대중이 함께 공감하는 음악으로 블루스와 재즈가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파나소닉코리아는 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 4-5홀에서 열리는 '2012 국제음향·무대·조명 기술산업전'에 참가해 공연 및 교회시장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터와 방송용 카메라, 초대형 PDP 등 시스템 제품을 전시한다. 파나소닉코리아 상품 사업본부 시스템솔루션사업를 이윤석 팀장은 "토탈 솔루션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친환경적이고 첨단 기술력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시 콘셉트를 설명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7일 서울메트로 시청역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앞면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계란을 증정하는 '굿모닝 에그데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구운 계란 2구 세트를 1600명에게 증정했으며 오전 9시~9시 30분까지는 2호선 전동차 승객 500명에게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령사회가 원하는 전문가 돼볼까

서울사이버대 대학원 2013학년 신입생 모집

서울사이버대 대학원이 다음 달 3일까지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전기 모집은 ▲휴먼서비스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과정) 93명 ▲상담심리대학원(상담심리학 석사과정) 63명 등 총 156명을 선발한다.

서울사이버대학원은 두 대학원 모두 특성화된 분야로 미래 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은 미래고령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정책 연구자, 사회서비스실천 전문가, 사회서비스 기관의 CEO 및 컨설턴트라는 3가지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담심리학 석사과정은 개인의 적응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상담전문가 양성을 추구한다. 관련 분야의 동향과 실무지식을 접목, 세대 간 상담, 위기관리 상담 등 특성화된 트랙를 구축해 차별화된 학문적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상담전문가를 양성한다.

빈티지 복고풍 언더웨어 눈길

마커스룰, GS홈쇼핑 방송

변성수 플러스미시크릿 언더웨어를 판매 중인 ㈜이게미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마커스룰 언더웨어 브랜드가 12~16일 GS샵에서 다양한 패키지 상품과 할인된 가격을 선보인다.

마커스룰 브랜드 담당자는 "남성 드로즈 전 상품은 레트로 빈티지스타일에 힐을 장식까지 경비하여 최상의 착용감을 위한 3D 입체패턴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 브라지에와 팬티는 볼륨을 살려주며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플레를 만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마커스룰 전 상품은 한국에서 라이선스 생산되는 제품으로 차별미 다른 홍진 자신감 등 나세워 론시한 지 한 달 만에 젊은 고객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가면 크리스마스 '스파 파티'

도심형 종합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한다.

먼저 운영되는 1층 아쿠아 스파에서는 와변탕에서 눈을 맞으며 즐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스파를 만나볼 수 있다. 제로회 바에 좋은 와인이 첨가된 와인풀과 함께 인공 눈을 분사해 투문객들이 데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내 스파에서는 스트레스 예방 및 노화방지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초콜릿을 테마로 한 초콜릿 스파를 선보인다. 밀크, 화이트, 다크 등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입욕감이 특징이다.

뷰티캠프서 45일 '촉촉한 체험'

바이오트루 마케터 모집

브랜드 '바이오트루(Biotrue)'가 25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케터의 꿈과 열정을 펼쳐갈 '촉촉 마케터'를 모집한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바슈롬 홈페이지(bausch.c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e메일(biotruefst@email.com)로 지원할 수 있다.

바이오트루 촉촉 마케터로 선발되면 다음 달 21일부터 2013년 2월 3일까지 약 45일 동안 뷰티 캠프 참여와 브랜드 실무자 멘토링 등을 통해 바이오트루의 브랜드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최우수 활동자 1명에게 장학금 200만원, 우수 활동자 2명에게 각 50만원, 우수 1팀에게는 100만원 등 장학금을 지원한다.

GS샵 윈터패션 콜렉션 손정완 작품 등 한자리

GS샵이 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운드 뮤지컬에서 '2012 GS샵 윈터 콜렉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서은영이 기획과 스타일링을 맡고 사진작가 김현성, 영화감독 곤오, 디자이너 손정완 등 국내 정상급 예술가들이 참여해 GS샵의 겨울 패션상품을 소재로 한 사진전과 설치미술작품 전시, 단편영화 상영과 패션쇼 등을 선보였다.

피날레는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대명사로 국내외 4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정상급 디자이너 손정완이 장식했다. 디자이너의 감성을 보다 많은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GS샵과 손잡고 13일(화) 'SJ WAN'이 스페이 약 니 의 GS샵 론칭을 앞두고 있는 손정완은 이날 패션쇼에서 'SJ WAN' 다섯 작품을 포함해 뉴욕컬렉션에서 선보였던 40여 개 아이템을 선보였다.

동절기 '엄마의 혈관을 부탁해'

서울의료원 심장의 날 행사

서울의료원 심혈관센터는 8일 '엄마의 혈관을 부탁해'를 주제로 심장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동절기 심혈관 관리법 및 뇌노병의 진단, 식이요법 등을 소개하는 건강강좌와 통가지에 대한 상담, 검사로 진행된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무료로 진행하여 본인의 심혈관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운동치료를 통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What's New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임우성 유방암 갑상선암센터 교수가 14일 본대학원 갈 목동점 도약즈홀에서 '유방암·갑상선암 이야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이달 건강강좌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여성건강해서 '여자 40세부터 건강하게'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16·17일에는 수능 이후 지친 부모를 위한 몸짱 캠프를 진행하고 혈당·혈류 체크 등 무료 건강검진과 함께 부인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수면장애 건강상담 및 종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성대학교는 9일 CGV 대학로에서 '한성대학교 수시 1차 합격자 대상 영화 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2013학년도 수시 1차 전형의 모든 합격생으로 한성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벤트에 참가한 선착순 200명(동반 1인 포함)에게는 007 스카이폴 관람권, 기념품, 팝콘 등 간식거리를 제공한다.

채니건스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로 수고한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30일까지 수능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험표를 제시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스위트 포테이토 핸치즈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파파존스가 수능을 보는 수험생과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9일까지 온라인에서 피자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매월 8, 18, 28일은 파파존스의 이벤트 기간인 '파파스데이'로 할인행사, 무료시식권 증정행사 등 단 하루만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날이었으나 이번 8일은 수능일과 겹쳐 수능 전·후일을 포함해 3일간 행사한다.

예스24는 퀴즈게임 '인터넷 골든벨'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28일까지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분야별 퀴즈에 참여하기만 해도 골든벨 퀴즈 도전에 필요한 별사탕 및 골든벨 이어하기를 지급하여 추첨을 통해 문화예매권, 할인권 등을 증정한다.

롯데닷컴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18일까지 올 겨울 시즌의 유행 패션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패션쇼처럼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만날 수 있는 'Girl's Runway', 스타의 패션 스타일로 코디할 수 있는 'Star Collection' 등 시즌 인기 아우터를 만날 수 있는 'Girl's 아우터 대전', 인기 브랜드를 라이벌전 형식으로 만날 수 있는 'Girl VS Girl', 금주 최고 인기 상품만 모아 놓은 'Girl's Hot Item'도 함께 운영한다.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이민영 '팝콘과 나초' MC

탤런트 이민영이 TBC 영화정보프로그램 '팝콘과 나초'로 MC 도전에 나선다.

9일 첫 방송에서는 여러 매체들의 기자들이 모여 만든 영화 평가 코너 '착하면 죽는다'를 통해 최근 개봉작 '내가 살인범이다' '터치' '업 사이드 다운' 이 소개될 예정이다. 테마별 버라이어티 코너 '씬의 품격'에서는 배우들의 재담 같은 '애드립 열전'을 엿볼 수 있다.

박신혜 대만판 '미남' 출연

배우 박신혜가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대만판에 특별출연한다.

소속사는 8일 "박신혜가 8~10일 대만에 머물며 내년 현지에서 방영될 리메이크작의 1회 오프닝 장면을 촬영한다"고 밝혔다. 박신혜는 2009년 SBS에서 방영된 '미남이시네요'에서 남장여자 고미남으로 출연해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내년 1월에는 tvN 드라마 '이웃집 꽃미남'에 출연한다.

정경호 미안마한국영화제행

배우 정경호가 제7회 미안마한국영화제에 한국배우 대표로 참석했다.

8일 영화제 개막식과 무대인사 및 리셉션을 소화한 정경호는 이후 팬 시인회 등 2박3일 일정을 소화하여 현지의 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그는 "미안마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달 말 하정우가 연출하는 영화 '언긴과 대통' 크랭크인에 돌입한다.

고주원 공익근무 마치고 복귀

배우 고주원이 2년간의 공익근무를 마치고 12일 돌아온다.

서울 송파구청에서 복무 중인 고주원이 12일 소집해제된다고 소속사가 8일 밝혔다. 2010년 11월 드라마 '김수로'를 끝으로 연예계를 떠났던 그는 틈틈이 운동과 시나리오 검토를 하며 복귀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새 작품에 출연할 계획이다.

정규 2집 '02'를 발표한 어반자카파. 왼쪽부터 박용인 조현아 권순일

이번엔 슬픈감성…전자음 뺐다

2집 앨범 모두 자작곡…절제미 최대한 살려
멤버들 이별 경험 녹아…지금은 모두 연애중

아이돌 부럽잖은 인기 누리는

어반자카파

감성 R&B 그룹 어반자카파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수천 석 규모의 공연은 예매와 동시에 매진이다. 앨범은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 차트 정상을 노린다. 이들의 음악에 취했다고 고백하는 스타도 속속 등장한다.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세 남녀 박용인(24)·권순일(24)·조현아(23)를 만나 아이돌과는 절대 나눌 수 없는 진솔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데뷔한 지 3년이 됐는데 3장의 미니앨범과 2장의 정규앨범을 냈다. 왕성한 활동의 비결이 뭔가.

●아직 어리고 부지런히 살아야 할 때다. 1년에 한 장의 정규앨범은 내자는 것이 우리끼리의 약속이다. 늘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어서다. (권순일)

▶이번에 발표한 2집 '02'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썼다. 미디(음악 편집이나 특수 효과를 위한 컴퓨터 장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리얼 악기를 사용해 소리를 냈다. (박용인)

힘을 많이 뺐다. 뺄 수 있는 건 다 빼보자고 기획 단계에서 결정했다. 리얼악기를 쓰되 최대한 절제했다. 올해 초 발표한 미니앨범에서는 욕심이 컸다.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과한 앨범이 나왔었다. (조현아)

▶왜 절제를 선택했나.

●음악이 자극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부담도 커진다. 선배들을 봐도 비워내는 작업을 계속하더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좋은 음악은 절제의 미학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번 앨범에서는 '리버'가 대표적인 곡이고 "니가 싫어"도 심심한 느낌이 날 수 있는 곡이다. (권순일)

1집 등 이전 앨범에서 느꼈던 상큼하고 달달함을 기대한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현아)

▶12개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웠는데 모두 이별 노래다. 어떤 이유에선가.

●한창 앨범을 작업 중이던 5~6개월 전 우리 세 명이 우연히도 거의 동시에 실연을 당했다. 이별로 인한 과한 음주, 마음의 상처, 난폭한 기운이 고스란히 음악에 영향을 미쳤다. (박용인)

용인이는 앨범 재킷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스튜디오를 뛰쳐나가기도 했다. (권순일)

5살 연상의 여인과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이별했다. 그 여인은 헤어진 지 2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 (박용인)

나는 1년 정도 사귄 남자와 헤어졌다. 초·중·고등학교 내내 왕성한 연애를 했는데 나와서는 1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 연애한 것이다. 그래서 더 아팠다. (조현아)

나는 궁상스러운 연애를 하는 편이다. 당시 헤어진 여인과 지금 다시 만나고 있다. 이성을 쉽게 좋아하지 못한다. 대신 사랑을 시작하면 오래간다. (권순일)

재밌는 건 지금은 우리 세 명이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밝고 희망찬 기운이 넘친다. 지금 여자친구는 영국에 있다. 활동이 바빠서 전화로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조만간 영국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박용인)

▶2012년은 어반자카파에게 매우 특별한 한 해였을 것 같다.

●봄에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1500석 규모의 공연을 2회 했다. 그때 "3000석 규모의 올림픽홀에서 공연하는 것이 올해 최고 목표"라는 바람을 우리끼리 얘기했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이뤄졌다. 두 달 전 꿈에 그리던 무대에 올랐다. 다음 달 21~22일에는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5000석 규모로 공연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권순일)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것도 잊을 수 없다. 3년차 신인이라 더 관심 있게 봐준 것 같다. 우리 음악은 찾아 듣는 음악인데 방송 출연 이후에는 찾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 나오더라. 카페다 화장품 가게, 술집에 우리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었다. 이제는 조금씩 얼굴을 알아본다. 신기하기만 하다. (조현아)

사진/한국영

‘밥퍼’ 최일도 인생사 뮤지컬로

유인택 단장 “작품 제작 위해 최 목사 10년간 설득”… 다음달 18일부터 공연

‘밥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사진)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가 무대에서 재현된다.

서울시뮤지컬단은 창작 뮤지컬 ‘밥 짓는 사인 퍼주는 사람(이하 밥퍼)’를 다음 달 18~2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5년 연상의 로즈수녀를 사랑하고 자살시도까지 감행하며 사랑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최 목사는 1988년 청량리 뒷골목에서 배고파 쓰러진 노인에게 라면 한 그릇을 끓여준 것을 시작으로 도시 빈민들에게 ‘밥퍼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600만 그릇의 무료 급식을 제공했고, 현재 제3세계의 빈민들에게까지 나눔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정신으로 그는 지난달 ‘2012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뮤지컬 ‘밥퍼’는 그의 감동 스토리를 담아 120만 부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동명 에세이가 원작이다. 현존인물을 뮤지컬 무대로 옮기는 최초의 작업으로 최 목사의 행복한 사랑과 험난하고 척박한 청량리 588에서 나눔활동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 등이 그려진다.

유인택 서울시뮤지컬단장은 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10년 동안 최 목사를 설득한 끝에 이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며 “드라마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직접 섭외해 대본 작업을 했고, 그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뮤지컬 넘버를 줄였다”고 전했다.

이어 “라이선스 뮤지컬이 판을 치는 요즘, 뮤지컬계에 창작 뮤지컬로도 얼마든지 성공신화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문의: 02)399-1114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이하늬, 가족과 ‘국악 앙상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인 어머니 문재숙씨와 특별한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그는 9일 오후 7시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어머니인 문재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와 문하생들이 함께 꾸미는 공연 ‘꿈꾸는 동행’에 나선다. KBS 국악관현악단 출신인 언니 이슬기씨와 함께 특별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하늬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대학원 출신으로 무형문화재인 어머니 문씨로부터 가야금산조 및 병창을 전수받은 실력파 가야금 연주자다. 언니 이슬기씨 역시 동 대학원 석사 출신의 국악 수재로 2001년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일반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1·2부로 이뤄진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에서 창작음악까지 가야금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가 펼쳐진다.

/전효순기자 kwj@

또디 by 정연식 <530> 결심

wind5656@naver.com

지금 트위터·소셜미디어에서는 와글와글

“수능은 인생의 작은 갈림길일 뿐”

8일 추운 날씨와 함께 어김없이 수능이 치러졌다. 학교마다 ‘수능 D-00일’ 하면서 입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찍부터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학생들을 지도했다.

물론 대입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의 삶을 출신 대학이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좋은 대학의 인기 학과를 나와도 직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지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자발적인 실업자가 돼 방황할 수 있다. 또 원하는 직업을 가져도 학교 때와는 다른 다양한 갈등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대학 입시는 흘러가는 인생의 흐름 속에 매우 작은 갈림길이며 이로 인해 스스로에게 작은 갈등을 야기하는 경험 정도로 봐야 한다.

/김두(god****)

우리나라는 대학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국민의 20%만 대학에 가는 나라도 있다. 대학 안 가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 정상이다.

2OK63

제 학년 수능 난이도는 쉽다고 하는 건지

JYP

대입은 시작일 뿐이다. 20세 전에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입에서 좌절하듯이, 30~40세에는 20세에 좋던 세상을 전부로 알은 사람들이 추락하고 있다. 꿈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경계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joh1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 수능날 전후에만 하지 말고 몇 년간 제발 그렇게 좀 말해보자.

bn__wee

전날 들은 모 인강사이트 쌤의 ‘혈형의 연속이 비범을 낳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수능 대박 났으면 좋겠다!

/정리=김동현기자 hskim@

대선주조
Ci은 부산이다
부산야구가 이겼을 때 힘차게 부산갈매기를 외쳤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에 목청껏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수놓은 화려한 불꽃의 향연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산과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는 시원–
부산은 시원입니다.
시원은 부산입니다
천연원료 토마틴으로
아침이 상쾌한 시원
Ci
즐거워 예

짱짱한 영화 보고 수능 스트레스 훌훌

수험생이 볼만한 영화 4가지 타입별로 살펴보니

감동 로맨스 '브레이킹 던 파트2'·액션의 진수 '아르고'

수능을 끝내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시간과 돈이 허락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자니 괜히 억울해지는 지금, 극장을 찾아 액션과 웃음, 감동으로 시험에 지친 심신을 달래보자.

◆ 꽃미남 오빠들이 보고 싶다면

요즘 대세 송중기의 '여어듬 지존' 김재중의 매력을 대형 스크린으로 만끽하고 싶다면 '늑대소년'과 '자칼이 온다'(15일 개봉) 티켓부터 손에 쥐자.

'늑대소년'은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 드라마다. 늑대소년(송중기)과 소녀(박보영)의 거짓 없는 교감은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대사 없이 감정을 전달하는 송중기와 한층 성숙해진 박보영의 호흡이 빛난다.

'자칼이 온다'는 한방에서 엔터 석 흥행을 기록한 JYJ 김재중이 가요·드라마에 이어 영화계까지 인기 영역을 넓힐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가 연기한 톱스타 최현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파견된 전설의 킬러 봉민정(송지효) 앞에서 온갖 굴욕을 자처하면서까지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인물이다. 화려하고 완벽한 비주얼 뒤에 숨어 있던 김재중의 엉뚱한 매력과 코믹 본능을 맛볼 수 있다.

◆ 대학에선 이런 판타지 러브를

캠퍼스의 낭만과 로맨스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할리우드 판타지 로맨스 '업사이드 다운'과 '브레이킹 던 파트2'(15일 개봉)를 미스터에 볼 필요가 있다.

'업사이드 다운'은 어긋난 우주 불변의 법칙에 따라 자신이 속한 세상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아담(짐 스터게스)과 에덴(커스틴 던스트)의 운명적인 사랑을 다룬다. 기발한 소재, 압도적인 스케일, 환상의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간과 뱀파이어의 운명적인 사랑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트와일라잇'은 '브레이킹 던 파트2'로 4년간의 이야기를 매듭짓는다. 영화의 주인공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로버트 패틴슨과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굴곡 많은 연애사처럼 다이내믹하게 이어온 이들의 영화 속 사랑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 스릴 만점 스트레스 제로

시험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에는 시원한 액션을 담은 스릴러가 제격이다.

'아르고'는 1979년 이란의 시위대에 포위당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탈출시킨 실제 CIA 작전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기상천외한 작전을 인정하이고 매끄럽게 풀어냈다. 할리우드 스타 벤 애플렉이 연출과 주연을 모두 해낸 이 작품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비롯해 실제와 대비해 그려지는 당시의 시대상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

정재영·박시후 주연의 '내가 살인범이다'는 지금까지 봐왔던 스릴러와는 다른 다양한 매력을 품은 작품이다.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단선적인 스릴러는 액션·코미디·멜로에까지 인장력으로 가지를 뻗친다. 사건과 경지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은 물론 지만한 반전이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단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재수생 이상의 수험생만 즐길 수 있다.

◆ 책으로 배우지 못한 현대사 영화로

국사 교과서에서 못 다 배운 현대사의 비극을 영화로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 있다.

'남영동 1985'(22일 개봉)는 전두환 정권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고문을 극영화로 꾸민 것이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자전적 수기 '남영동'을 토대로 충격적인 고문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이 1년 만에 내놓은 문제작이다.

'26년'(29일 개봉)은 인기 만화작가 강풀의 동명 웹툰을 영화화한 것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이 학살의 주범을 단죄하려는 복수극을 담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소재·구성·연기 모두 빛났다

'살인의 추억' 연쇄살인범 모티브 인상적인 액션신 또다른 볼거리

Film Review

/이혜린 칼럼니스트 lariehoon@naver.com

■ 내가 살인범이다

상업영화로는 과감한 제목이랄 수 있는 '내가 살인범이다'는 시의성 강한 소재와 시종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구성과 화끈한 액션이 어우러진 영화다.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 잡히지 않았던 부녀자 연쇄살인범을 모티브로 한다. 공소시효가 끝난 범인이 자신이 범한 연쇄살인의 추억을 자서전으로 내놓고, 이로 인해 대중 스타가 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진범을 잡으려는 디펜질 형사가 범인과 한편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복수를 하려는 피해자 가족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서 이야기는 복잡하게 꼬인다.

'내가 살인범이다'를 보고 있노라면 흉악범의 공소시효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흉악범이 잘 생긴 외모로 대중 스타가 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 법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복수를 집행하려는 모습도 무엇이 정의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내가 살인범이다'는 소재의 힘만 지닌 것이 아니다. 다큐멘터리 '우린 액션배우다'를 연출한 정병길 감독은 액션스쿨 출신 감독답게 한국영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인상적인 액션을 선사한다.

영화 오프닝 장면에서 펼쳐지는 형사와 범인이 벌이는 추격전은 배우와 핸드헬드 카메라가 함께 뛰면서 멋진 영상을 제공한다. 세 번에 걸쳐 등장하는 자동차 추격전은 한국영화 사상 가장 과감한 스턴트 영상으로 펼쳐져 몸을 사리지 않았을 스턴트맨들과 위험한 도전을 한 배우와 스태프에게 박수를 보낸다.

처음으로 형사 역을 맡아 관객들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정재영의 힘이 도드라지며, 잘생긴 얼굴로 관객들을 속이는 신인 영화 배우 박시후의 출연도 인상적이다.

다만 자동차 추격전에 대한 감독의 과한 애정 때문에 첫 번째 추격전이 너무 길고, 과장되게 그려져 이야기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청소년관람불가.

이병헌 주연 사극 '광해' 내년 2월에 일본 상륙

이병헌 주연의 팩션 사극 '광해, 왕이 된 남자'가 내년 2월 일본에 상륙한다.

이 영화의 현지 배급을 맡은 CJ엔터테인먼트 재팬은 7일 "'광해…'가 내년 2월 16일 일본 전역에서 '왕이 된 남자'란 제목으로 개봉된다"고 밝혔다.

개봉 시기가 알려진 이날 일본 포스터가 공개됐고, 공식 홈페이지도 문을 열었다.

국내에서 상영 두 달째로 접어드는 '광해…'는 6일까지 1141만8829명을 불러모아 '실미도'(1108만 명)를 제치고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 6위로 올라섰다.

/조성준기자 when@

1 금액대별 할인행사

15/30/50만원 이상 구매 시 3/5/7만원 즉시할인

2 1+1 이벤트

3in1 자켓 or
다운 자켓 구매 시
플리스 자켓을 하나 더 드립니다

3 수능대박 더블 포인트 적립

수능 수험표를 제시한 구매고객에게
세정 포인트 더블 적립

이벤트 기간 : 11월 1일~11월 30일

트레킹은 센터폴!

매장 문의 : 02-2009-5183 / 7438 | 개설 가능 상권 문의 진지원 팀장 : 010-5447-3452

WENGER 120년 전통의 스위스 아웃도어 「WENGER」를 센터폴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Multi-Functional Like You!

현빈·신민아 신생사서 한솥밥

배우 현빈(사진 왼쪽)이 신민아와 함께 장동건의 곁을 떠나 신생 회사에 둥지를 튼다.

그는 AM엔터테인먼트에서 함께 일했던 담당 이사가 새롭게 설립한 오앤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신민아는 최근 계약을 체결했으며, 군 복무 중인 현빈은 조만간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사람은 장동건이 설립한 A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SM C&C로 합병되는 시점에 계약이 만료돼 홀로서기에 나섰다. 현빈은 1인 기획사 설립도 고려했으나, 신민아와 함께 신생 기획사에 몸담는 것으로 전 소속사 식구와의 의리를 지켰다.

한편 현빈은 다음 달 6일 전역하고 연예계에 복귀할 예정이며, 신민아는 MBC '아랑사또전' 종영 후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탁진현기자

'대세' 송중기 몸값 얼마나

내년 초 계약만료 연예기획사 영입경쟁 치열할듯

'대세'로 떠오른 송중기가 올 연말 FA(프리에이전트)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송중기가 5년간 몸담았던 싸이더스HQ와 내년 1월 전속 계약이 만료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예 기획사들이 영입을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송중기는 아직 재계약과 이적 중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싸이더스HQ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다 드라마 촬영으로 바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만약 이적을 한다면 '몸값'이 얼마나 치솟을지도 관심사다. 최근 주연을 맡은 드라마와 영화가 쌍끌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스타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KBS2 '착한 남자'는 수목극 1위를 달리고 있고, 영화 '늑대소년'은 개봉 9일만인 8일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흥행에 힘입어 작품과 광고 출연료도 폭등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탁진현기자

자신만만 소현 여유만만 종업

수능 응시한 스타들 표정

포미닛 소현 B.A.P 종업 빅스타 래환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스타들도 시험을 보거나 응원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포미닛 소현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청파동 신광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날만큼은 무대 의상을 벗고 수험생답게 수수한 차림으로 나선 그는 재학 중인 서울 정문여자고등학교 선후배들과 소속사 식구 및 팬들의 응원,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고사장에 들어섰다.

B.A.P 종업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산고등학교에서 시험에 임했다. 팀 멤버들이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을 건네받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고사장으로 향했다.

이밖에 타히티 지수, 빅스타 래환, 씨클라운 레이, 글램 다희 등도 지인과 팬들의 응원 속에 시험을 봤다.

수능과 무관한 스타들도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하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 수험생이 "떨려서 잠이 안 온다"는 글을 남기자 "난 결혼을 영영 못할 줄 알았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쉬어봐 젊은이"라는 재치있는 응원 글로 답했다.

샤이니의 종현도 트위터에 "수험생 여러분 노력한 만큼 돌려받을 겁니다. 어차피 긴장하는 건 없이 꼼꼼히 챙깁시다"라고 격려했다. JYJ 김준수, 원더걸스 선예·유빈·예은 등도 수능 하루 전날에 응원 글을 남겼다.

한편 에프엑스 크리스탈, 카라 강지영, 달샤벳 수빈, 걸스데이 혜리는 수능에 앞서 치러진 수시 전형으로 일찌감치 대학 합격장을 따냈다.

미쓰에이 수지, 에프엑스 설리, EXO-K 세훈, 2NE1 공민지, 에이오에이 설현은 연예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진학을 미뤘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김장훈 중국서 국빈대우

조림사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장훈이 국빈 대우를 받았다.

김장훈의 소속사 공연세상은 9일 "중국 서북부 닝샤 성 정부에서 지역 사막화 방지에 기여한 김장훈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뜻에서 새로 조성된 숲에 김장훈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며 "어느 중국 연예인도 받지 못한 사상 최초의 대우"라고 전했다.

김장훈은 5월 중국으로 출국해 닝시와 네이멍구의 사막 지대에 1만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닝시 성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생긴 숲에 '김장훈 숲'이라는 대리석 팻말을 세우기로 했으며, 내년 3월 명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8일 귀국한 김장훈은 신곡 '살다'로 국내 활동을 이어간다.

올겨울 부츠 결정했어!

◀ 픽크범

◀ 자나 부츠

◀ 유니온 스트리트

락포트 18일까지 20% 보상 할인+회원 10% 혜택

미국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슈즈 브랜드 락포트가 보상 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늘(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브랜드에 상관없이 헌 신발을 매장에 가져오면 신규 통시 제품을 20% 할인해준다.

또한 기존 골럽 락포트 회원과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두터운 미니아층을 갖고 있는 락포트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완성시킨 풋베드와 신발 구조, 충격 흡수력과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 착화감이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가을 겨울 신상 부츠 매력적

락포트는 2012 가을 겨울 시즌을 겨냥해 다양한 신상 부츠를 선보였다.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소재가 돋보이는 여성용 '시드라 부츠'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니하이 부츠(Knee-high Boots) 스타일로 고무 소재 웨지힐을 사용해 8.5cm의 높은 굽에도 발이 편안하다. 특히 무릎과 발목 부분에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 디테일을 더해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남성용 부츠 '유니온 스트리트'는 윙팁 패턴을 더해 클래식한 느낌을 더했다. 부드러운 가죽 소재와 블랙·다크 브라운 등 감성적인 컬러를 활용해 고급스러움이 돋보인다.

신발 안쪽에 퍼 소재를 사용한 여성용 웨딩 부츠 '자나 부츠'는 지그재그 방식의 레이스업과 스웨이드 소재의 플러 등으로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남성용 윈터 부츠 '픽크범'는 천연 고무 아웃솔을 써 눈길에도 미끄러지지 않고, 가죽 소재에 방수가공 처리를 더해 기능성을 높였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락포트 공식 홈페이지(www.rockportkorea.com) 또는 공식 블로그(www.rockportblog.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시드라 부츠

서울랜드서 신나는 '수능 뒤풀이'

자유이용권 반값 혜택 CPK 스파게티도 무료

시험 끝, 이제 즐길 차례다. 수능시험을 마친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이벤트가 풍성하다.

서울랜드는 오늘(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험표나 고3 학생증을 지참한 수험생들에게 자유이용권을 50% 할인해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쌓인 공부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리고, 졸업을 앞둔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서울랜드 측은 전했다. 문의 02)509-6000

서울랜드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퀴진 레스토랑 CPK(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역시 수능 대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수험표를 제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토마토바질 스파게티를 무료로 제공한다. 테이블당 1회 사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로 만든 소스에 향긋한 바질을 넣은 토마토바질 스파게티는 깔끔한 맛이 매력적인 이탈리아 클래식 파스타다. 메인 메뉴 주문 시 이용 가능하며, 멤버십 할인 및 제휴카드·타 쿠폰 할인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문의 02)3479-9000

명품유모차 '스토케' 한국지사 설립

국내 고가 유모차 돌풍을 불러온 노르웨이 유아용품업체 스토케가 한국지사인 스토케코리아를 설립,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토케코리아는 한 손으로 접을 수 있는 스토케 최초의 컴팩트 유모차인 '스토케 스쿠트'(99만원대)를 비롯해 카시트 '스토케 이지고'(36만원대)와 유모차 스토케 익스플로리의 겨울액세서리 '윈터키트'(44만원대)를 공개했다.

스토케 코리아 론칭을 기념해 스토케의 토미스 스테빅 사장과 스토케 설립자의 3대 후손인 루네 스토케가 방한해 행사장을 찾았다.

/전효순기자 hsjeon@

오뚜기 '진 앤 지니' 1기 해단식

라면업계 첫 대학생 서포터

오뚜기가 6일 서울 강남구 오뚜기 센터에서 진라면 대학생 서포터즈 '진 앤 지니(JIN&JINY)' 1기 해단식을 가졌다.

JIN&JINY는 진라면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톡톡 튀는 라면 창작요리전, 런던 올림픽 응원, '어린이 재단' 봉사활동 등 5개월 동안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수행해왔다.

JIN&JINY는 라면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학생들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라면의 첫 글자와 '나이긴다'는 뜻의 한자어 '진(進)',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지니'의 합성어다.

찜찜한 성분 뺀 안전 화장품

에이트루 오리진 라인 출시

피부에 안전한 화장품을 콘셉트로 한 스킨케어 브랜드 에이트루(A'TRUE)가 공식 론칭했다.

미국 비영리 환경시민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 EWG SKIN DEEP에 의거, 유해도 기준 0~2의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에이트루의 첫 제품인 오리진 라인은 수분 공급과 항산화에 충실한 '3-스텝 스킨케어 4종'으로 구성됐다.

항산화에 탁월한 아사이베리와 3대 보습성분인 히알루론산, 트레할로스, 베타글루칸 등을 주성분으로 피부에 유해한 성분은 철저하게 배제한 것이 특징이다. 에이트루 오리진 라인은 12월까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2만 포인트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문의 www.atrue.co.kr 1661-8470 /박지원기자

이용대 키스사진 온라인 후끈 달궈

"유포자 법적 대응"

'윙크보이' 이용대(24·사진)와 수영장 키스사진이 한때 온라인을 떠돌며 화제가 됐다.

8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용대와 그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의 키스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이용대는 상의를 탈의한 채 여자친구와 다정한 포즈로 카메라를 응시하는가 하면 수영장에서 수영복만 입은 채 그녀와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용대는 옛에 사실을 인정하고 "여친과 함께 찍은 사진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여친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누군가가 몰래 찍어 유포한 것이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살 연하인 이용대의 여자친구는 동덕여대에 다니는 미모의 대학생으로 알려졌다.

/김민준기자

송승준 단 1실점 에이스 파워

6이닝 8K 역투… 롯데, 호주 퍼스 히트 완벽제압

롯데 자이언츠가 호주 퍼스 히트를 누르고 상큼하게 출발했다.

롯데는 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퍼스와의 '마구 매니저 아시아시리즈 2012' B조 예선 경기에서 장단 12안타를 몰아친 타선과 송승준의 호투를 앞세워 6-1로 승리했다.

개최도시 자격으로 참가한 롯데는 B조 최약체로 꼽히는 퍼스를 누르고 1승을 수확, 한결 편한 마음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전을 맞게 됐다.

마운드와 공격 모두 롯데가 한 수위의 수준을 뽐냈다.

롯데 타선은 이날 12안타 6득점을 올리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조성환은 1-0으로 근소하게 앞선 4회에 터진 2타점 적시타를 포함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승리를 견인했다. 결승타의 주인공 홍성흔은 3타수 1안타 2볼넷을 얻어내며 제 몫을 다했다.

선발 투수 송승준은 6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의 주춧돌을 놨다. 이날 8개의 탈삼진을 솎아낸 송승준은 4회까지 한 명의 주자도 출루시키지 않는 무결점 피칭을 펼쳤다.

퍼스는 야수들의 실책이 아쉬웠다. 퍼스는 0-1로 뒤진 4회초 3루수와 유격수가 연이은 송구실책을 해 분위기를 넘겨줬다. 야수들의 실책으로 출루한 주자들은 모두 실점으로 연결돼 아쉬움은 더 컸다.

퍼스 소속으로 아시아시리즈에 출전한 구대성은 이날 경기에 등판하지 않았다.

롯데는 10일 사직구장에서 요미우리와 결승 진출을 놓고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편 대만의 라미고 몽키즈는 중국의 올스타가 모인 차이나 스타즈와의 A조 예선 1차전에서 린즈셩과 천진펑의 불방망이를 앞세워 14-1로 7회 콜드승을 거뒀다. /뉴시스

"내일 요미우리도 뭐자" 8일 열린 2012 아시아시리즈 예선전 퍼스 히트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롯데 선수들이 자축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화재배 우승상금 3억원 잡아라

'박정환 vs 구리' '이세돌 vs 최철한' 4강 대결 12일부터 유성연수원

우승상금 3억원을 향한 별들의 계전 2012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가 '박정환 vs 구리' '이세돌 vs 최철한'의 4강 경쟁으로 좁혀졌다. 이들은 12~15일 대전시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3번기로 준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은 국내 랭킹 1위 이세돌, 2위 박정환, 3위 최철한이 차례로 4강행을 결정지으며 라이벌 중국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구리만 이름을 올려 체면치레했다.

한국바둑은 올해 중국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 삼성화재배에선 중국의 독세를 허용치 않고 있다. 16강전에서 중국을 상대로 5승2패를 기록했고 8강전에서도 2승1패로 우위를 보였다.

박정환과 구리가 맞붙는 한중 백대치의 결과에 따라 한국은 전기 원성진의 우승에 이어 대회 2연패 및 통산 11번째 우승을 조기에 확정짓는다. 두 기사는 2010년 후지쯔배 16강에서 딱 한 차례 맞닥뜨려 박정환이 불계패한 바 있다.

국내 랭킹 2위 박정환은 "중천의 태양"으로 표현된다. 올해 응씨배 결승에 올라 있고, KBS바둑왕전과 맥심커피배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69승17패로 다승과 승률(80%), 최다대국과 연승(18연승) 등 전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준결승전에 진출한 최철한, 이세돌, 구리, 박정환(왼쪽부터)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삼성화재배와 인연이 깊은 구리는 2010년 우승을 비롯해 4년 연속 4강에 이름을 올렸다. 전기에 이은 연속 4강 진출자도 그가 유일하다. 다만 올해 세계대회 최고 성적이 8강에 그치고 있어 예전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세돌과 최철한은 연말의 화두로 떠오르는 얼굴들이다. 국내 최대 기전인 올레배의 우승컵도 다투고 있어 '7번기 대전'으로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있다.

삼성화재배 대회 최다 3회 우승자인 이세돌은 4년 만에 4강에 올랐다. 최철한 역시 7년 만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만에 다시 올라선 이들의 준결승 무대는 화끈한 전투 스타일과 맞물려 뜨거운 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전적은 이세돌이 24승17패로 앞서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8 Do you have a cell phone? 소유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 1의 샘플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면서 역할을 바꿔 가며 말해보세요.

상황 설명 > 코트를 벗어둔 사람과 그것을 맡아둔 사람의 대화

A Where are my coat and hat?
Harry, 당신이 제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B 제가 당신의 코트와 당신의 모자 둘 다 가지고 있어요.
A Oh, good. Thank you. Does Sally have a coat?
B No, she doesn't have one.
A Oh, 당신은 코트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B Yes, I do.

정답 don't you have my coat? / I have both your coat and your hat. / you have a coat, don't you?

생생영어팁

▶ have의 여러 가지 뜻

have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개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 사람과의 관계
  ex. 난 오빠가 있어요. → I have a brother.
- 신체 특징
  ex. 난 머리가 길어요. → I have long hair.
- 추상적인 일면 과제
  ex. 나에겐 문제가 하나 있어요. → I have a problem.
- 계획이나 일정
  ex. 난 내일 시험이 있어요. → I have a test tomorrow.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Not long ______ leaving the Niskian Company, Mr. Saito began working at a government agency.
(A) around (B) off
(C) over (D) after

02 ______ desks and chairs have been ordered for the four newest staff members.
(A) Adding (B) Additive
(C) Addition (D) Additional

01. 사이토 씨는 니스키안 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 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해설 not long after는 '오래되지 않아'를 의미하는 구문이다.
어휘 government agency 정부 기관
정답 (D) after

02. 신입 사원 4명을 위해 책상과 의자가 추가로 주문되었다.
해설 명사인 desks and chairs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이 형용사가 나와야 하므로 "추가적인"을 의미하는 additional을 쓴다.
어휘 staff member 사원 additive 첨가물 addition 추가
정답 (D) Additional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사진을 소개하기

사진을 소개할 때 장소를 소개하는 문장으로 시작해도 좋지만, 눈에 띄는 대상을 언급하며 사진 소개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눈에 띄는 중심 대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This is a picture taken in a classroom. 이것은 교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teacher and some students. 이것은 선생님과 몇명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It looks like it's a classroom. 이곳은 교실같이 보입니다.
This picture looks like a classroom. 이 사진은 교실처럼 보입니다.
This picture shows a classroom. 이 사진은 교실을 보여줍니다.
In this picture, there is a woman giving a presentation in front of people.
이 사진에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Tip 사람+동사의 -ing

-ing 형태의 현재분사는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을 수식합니다. 이때 -ing 앞에는 who is 또는 who are가 생략된 형태이므로, is/are를 반복해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There is a teacher is wearing a hooded shirt. (x)
→ There is a teacher wearing a hooded shirt. (o)